

결 정

2018 - 4016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중 면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2월 31일자(이하 캡처시각) 「“내 남자는 어제와 그곳이 다르다!”」 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2월 31일자 「“내 남자는 어제와 그곳이 다르다!”」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①아시아경제



<17. 12. 31. 19:21 캡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2919143030203>>

②머니투데이



<17. 12. 31. 20:20 캡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2819461284204&VBC>>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는 ‘메가셀’이라는 건강식품을 광고 하면서 “내 남자는 어제와 그곳이 다르다!” 라고 하고 남녀가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의 선정적인 사진을 실었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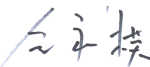

<<http://megacellkorea.cafe24.com/?srl=2>>

The screenshot shows a website header with a navigation bar containing '정치', '건강', '사회', '라이브', '오피니언', '스포츠', and '연예'.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headline: '건강 [화제] 하루 딱 1알로 “내 남자는 어제와 다르다” 남자 자신감, 하루 딱 1알로 가능?! 상담 전화 폭주!'. Below the headline are three bullet points: '- 남자를 뽐뽐하게 지속해주는 자신감 “이것”으로 해결', '- 내 남자의 꽃꽂한 자존심 UP↑↑', and '- 진짜 사나이! 영화배우 “이동준”, 스타미나 위해 매일 남몰래 “메가셀” 챙겨먹어...'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김규식	김규식
	강희	강희

하 윤 수 
김 영 모 
박 현 갑 
박 미 경 